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⑪ 단오문화 (上)



▶한줄 요약
중국에서 상고시대부터 단오를 불길한 날로 여긴 이유는 양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인데 극단의 기운을 경계한 셈이다. 한국의 경우, 오히려 단오의 강한 양기를 이용하는 뜻을 받아들여 신성하고 길한 날로 여겼다.

'吉인가 惡인가'…상반된 韓·中 단옷날



강릉단오제. 범일국사를 모신 국사성황사 앞에서 제를 올리는 모습. 사진제공=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음양이 교차하는 오월

올해는 음력 오월의 초입에 하지(夏至)가 들었다. 연중 밤이 가장 긴 동지(冬至)를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한 해가, 하지에 이르러 정점에 이르게 된다. 그런가 하면 하지 다음 날은 양수(陽數) 5가 중첩되어 연중 양기가 가장 강하다고 여기는 단오(端午)이다. 이처럼 양력 유월의 21일과 22일에 나란히 하지와 단오가 들었으니, 민속 통념으로 보자면 나쁜 음기를 몰아내기에 더없이 적합한 시절인 셈이다.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불렀듯이, 대척점의 하지는 한 해의 반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날이다. 왕성한 양(陽)의 기운 속에 음(陰)이 싹터 한 해의 하반기로 서서히 접어든 것이다. 주역에 "동지에 일양(一陽)이 시작되고 하지에 일음(一陰)이 시작된다"고 했듯이, 최고점을 찍음과 동시에 이미 반대 기운이 싹트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정상에 오르면 언젠가 내려오게 마련이고, 절망의 바닥에서 한 줄기 빛이 시작되는 이치이다. 음양이 교차하는 오월에, 우주 만물은 한순간도 제자리에 머묾이 없음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하루해가 긴 음력 오월을 옛사람들은 '깐깐오월'이라 불렀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오월, 특히 5일을 흉한 달로 보는 관념이 있어 흥미롭다.

중국에서 상고시대부터 단오를 불길한 날로 여긴 이유는 양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강한 양기를 좋게 여겼으나 극단의 기운을 경계한 셈이다. 이는 단지 오월을 악월로 여긴 데 그치지 않고, 단옷날을 '악일'로 여겨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여러 금기를 둔 풍습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중국의 오월은 우리나라보다 무덥고 습한 장마철이라, 각종 독충과 역병·질병이 창궐하였다. 따라서 전갈·뱀·지네·도마뱀·두꺼비를 다섯 독충이라 하여 '단오5충(端午五毒)'이라 불렀고, 쑥·웅황·향료를 넣은 주머니를 아이들 가슴에 걸어 액운과 전염병을 물리치고자 했다. 부녀자들도 쑥과 오독영부(五毒靈符)를 몸에 차거나 머리에 꽂았다. 쑥·부적·약초 등은 단오 풍습의 원형에 해당하는 요소들로 모두 액을 쫓는 의미를 지녔다. 이러한 벽사(辟邪)의 풍습은 단오가 중요한 명절로 자리하는 데 큰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기원전부터 단오를 중시하였고, 지금도 단오절이 춘절·청명절·중추절과 함께 4대 명절로 꼽힌다. 중국의 단오 유래는 크게 두 갈래로 살필 수 있다. 하나는 역사적 인물인 굴원(屈原)을 기리기 위한 데서 비롯되어, 초기의 제사는 위령제의 성격을 띠었다. 또 하나는 오월과 단오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연동된 것으로, 서로 모순되지만 보다 실제적이고 뿌리 깊은 요인이라 하겠다.

오월은 악월인가, 길월인가

이러한 중국의 단오풍습은 우리나라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고려 때부터 쑥·창포로 노리개를 만들고 창포주를 마시는 풍습, 단오부적을 차거나 인형을 만들어 문에 매다는 풍습은 모두 중국에 근원을 둔 것이다. 이후 이들 요소를 한국의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하기도 했으나, 큰 틀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풍습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단오에 대한 인식이 근원적으로 달랐기에, 같은 풍습이라도 반대의 관념 속에서 이루어졌다. 쑥·창포·부적으로 질병과 액운을 물리치고자 했지만, 이는 단오가 악월이라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오의 강한 양기를 이용하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단오의 화기(火氣)를 몰아내는 풍습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는 동짓날 팥죽을 뿌려 음기를 몰아내듯 단옷날 양기를 억누르는 음양의 이치에 따른 것이다. 오월 또는 단오를 악월·흉일로 여기는 관념은 아예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단오를 신성하고 길한 날로 여겼기 때문이다. 단오를 부르는 우리말 '수리'가 상(上)·고(高)·봉(奉)·신(神)의 뜻을 지녔듯이 단오를 으뜸가는 날로 여겼고, 오월 또한 상달인 시월과 유사하게 인식한 것이다.

이처럼 똑같이 '액운 몰아내기'의 습속이지만, 출발의 방향성은 서로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오월의 액운을 몰아내기 위해 방편을 쓰는 날이라면, 한국에서는 오월의 강한 양기로써 평소 우리 주변에 있는 액운을 몰아내기에 좋은 길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후 차이와 함께 한국인의 긍정적·적극적 사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풍습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정서에 맞도록 수용한 것이다.

극단의 강한 양기 경계한 중국
단옷날 '악일' 여겨 적극적 방어
한국은 마을 수호신 풍습 활발
주민 동참으로 마을 축제 승화



신윤복의 '단오풍정'. 사진제공=간송미술관

중국문화와 교류가 컸던 지배층의 기록에서는 단오를 '악일'로 작용한 사례도 드러난다. 이를테면 〈삼국사기〉에 후삼국의 궁예(弓裔)가 단오에 태어났다는 설화를 꼽을 수 있다. 일관(日官)은 궁예의 탄생일이 나라에 이롭지 못할 징조라 왕에게 아뢰어, 사신이 그 집에 가서 아기를 빼앗아 다락 아래로 던지게 된다. 이때 유모가 몰래 아기를 받아 도망가서 길렀는데, 받을 때 실수로 눈을 찔러 한쪽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관념을 반영한 설화일 뿐, 민간에서는 단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싹트지 않았다.

"해마다 오월이 되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제사를 지내는데, 떼지어 노래하고 춤추며 술 마시기를 밤낮으로 쉬지 않는다. 춤출 때는 수십 명이 줄을 서서 땅을 밟으며 앉았다 섰다 하면서 손과 발로 장단을 맞춘다. 시월에 추수를 마치고서도 이렇게 한다."

상고시대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풍습을 적은 중국 기록이다. 벼농사를 지어 오월 파종과 시월 추수를 마치면, 하늘과 산천에 제사 지내며 음주가무로 축제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단오는 농사 절기와 결합한 제천의례로, 하늘과 산천의 신에게 제사 지내며 공동체가 함께 즐긴 명절이었다.

공동체의 종합 축제

단옷날이면 나라부터 마을·가정에 이르기까지 제사와 마을굿 등이 이어졌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이날 스님들이 영정을 모셔놓고 범패를 부르며 조상 왕생을 위한 재(齋)를 지낸다"고 하였다. 불교가 성행한 고려 때 사십구재를 비롯한 상례와 기제사를 사찰에서 지내는 이들이 많았듯이, 단오 명절에도 이와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오에는 마을 수호신에게 의례를 지내는 풍습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단오제는 공동체를 지켜줄 신을 섬기는 것이기에, 주민들이 다 같이 동참하면서 다채로운 마을축제의 성격을 띠게 마련이다. 그 가운데 단오가 성했던 산간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강릉단오제를 꼽을 수 있다. 산신을 모셔와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섬기는 구조를 지녔는데, 주신인 대관령 국사성황신이 바로 신라의 범일국사(梵日國師)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아울러 단오는 연중 양기가 가장 왕성하니 이를 활용해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다양한 풍습이 전한다. 여기에 주로 쓰인 재료는 부적을 비롯해 창포·쑥·익모초 등의 약초이다. 특히 약초는 단옷날 정오 무렵인 오시(午時)에 뜯은 것을 최고로 여겼다. 연중 가장 양기 왕성한 단옷날, 양의 기운이 최고인 시간에 뜯은 약초이니 그 효험이 더없이 클 것이라 본 것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 신흠(申欽)은 단옷날 거리 풍경을 보며 "계집아이 새벽에 일어나 머리에 창포를 꽂고, 마을 집집에서는 병 물리칠 부적을 달았네"라고 노래하였다.

단오의 강한 양기를 경계하여 이를 누르는 풍습도 나란히 이어졌다. 양기가 심하면 불기운을 머금어 화재와 가뭄을 가져오니, 음기를 보충해야 화재를 막고 풍농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주로 '소금 묻기'와 '용왕제' 등으로 대처하였다. 바다를 상징하는 소금을 쓰고 물을 다스리는 용을 섬김으로써 단옷날 화기(火氣)를 잠재우고자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네타기·씨름·석전 등은 고려 때부터 이어진 단오의 대표적인 놀이이다. 다른 명절의 놀이에 비해 역동적인 성격을 지녀, 여름맞이 신체 단련을 위한 의미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동국세시기〉에는 이날 영남의 금산(金山) 사람들이 직지사에 모여 씨름판을 벌였는데, 수천 명의 구경꾼과 함께 연중행사로 이어졌다고 기록했다. 지금도 단옷날 승속이 하나 된 놀이마당을 펼치듯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민들과 함께한 사찰의 역사 또한 오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오절식으로는 쑥떡과 제호탕 등을 꼽는다. 쑥은 단군신화에 등장할 정도로 우리 민족과 관련성이 깊고, 특유의 향과 약용 효과로 삿됨을 물리치는 상징성을 지녔다.

단오는 설·한식·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자리 잡아 풍성한 문화가 전승되었으나, 17세기 이후 이앙법(移秧法)의 확산과 함께 농사력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수경 직파가 주류였던 조선 전기에는 단오를 전후한 기간이 일시적 농한기에 속했으나, 이앙법이 보편화되면서 모내기가 한철인 농번기에 편입된 것이다. 이러한 농사력의 변화는 단오가 쇠퇴한 배경으로 작용하였고, 단오풍습은 밭농사를 주로 하면서 보리 추수가 일찍 끝나는 북부지역에서 활발하였다. 다음 호에는 불교와 단오풍습을 다루고자 한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사단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 종도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여래불교조계종(단)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큰 서원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책무로
사단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 창종을 알리며 본 종단과 함께 펼쳐나갈 전국에 계시는 종도 스님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연암당 덕평**
총무부장 **설오**
교육원장 **재오**
종회의장 **국담 민호**
문화원장 **기원 하담**
포교원장 **문성**
재무부장 **보륜 성도**
법인이사장 **현담 법오**
사회부장 **보리암 삼초**
교무부장 **건호**
포교부장 **무진**

입종서류안내 :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연 락 처 : 총무원장 덕평 스님 **010-6219-4757** / 이사장 법오 스님 **010-2357-7747**
총무부장 설오 스님 **010-5385-3658** / 사무국장 이귀재 **010-3727-2632**
총무원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 1동 창대 장터 상가 2층 202호